

공간적 조형 형태의 복식디자인의 연구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Spatial Moulding Form

- 관두의(貫頭衣) 형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

안 선 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패션디자인과 강사

김 정 혜

안양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조교수

1. 서 론

2. 관두의의 이론적 고찰

- 2-1. 관두의의 개념과 유형적 분류
- 2-2. 관두의의 역사 및 현대복식디자인

3. 공간적 조형 형태와 복식디자인

- 3-1. 복식의 공간적 조형성
- 3-2. 작품 제작 및 해설

4. 결론 및 제언

5. 참고문헌

국문요약

복식은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인간이 착용함으로써 생명력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입체성을 지닌 공간 조형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는다'라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동감(動感)에 따라 입체적 형태를 이루는 조형성이 복식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인체의 동작과 착장법에 의해 풍부한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관두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간결하고 현대적인 특징을 지닌 기하학적 도형의 복합 형태를 모티브로 한 관두의(貫頭衣)형식의 복식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면 패턴이 인체에 입혀졌을 때 형성되는 평면성과 입체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착장법에 의한 기하학적인 면의 자연스러운 분할과 미묘한 색채 및 형태의 구성을 시도하여 보다 더 현대적이며 다양한 가변성(可變性)을 지닌 조형의상을 연구하는데 있다.

작품은 관두의 형식의 T자(字) 구조를 토대로 패턴을 구성하여 인체에 직접 입혀 형성되는 조형적 형태를 실험을 통해 실물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ABSTRACT

Garment is not only a part of formative art that establishes a live shape by wearer but also space modeling which features the solidity based on human body. Hence, beyond the simple meaning of 'wearing clothes', modeling, which makes a cubic shape in accordance with human body's movement, is an important element in garment design. This study examined puli-over-typed garment design that owns abundant space sense, taking complex shapes of geometrical diagrams with brief and simple features as a motive. The study aims at seeking after the combination of plane and cubic forms, and exploring formative garments which are further modern and different variance by approaching the natural section of geometrical facets with tightfitting idea and composition of delicate colors and forms when plane pattern was put on human body.

1. 서론

복식은 인간이 착용함으로써 형태를 이루고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입체성을 지닌 공간 조형이다.

인체에 입혀진 의복은 창작된 가상(假象)이 생겨서 복식이 성립되고, 입고 있는 자세(姿態)는 육체를 포함하여 복식으로서 예술창조로서의 형(形)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조형성(造形性)을 강조한 2차원적인 평면에서 3차원적인 조각 같은 형태를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 실루엣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면 패턴이 인체에 입혀졌을 때 형성되는 평면성과 입체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창작법에 의한 기하학적인 면의 자연스러운 분할과 미묘한 색채 및 형태의 구성을 시도하여 보다 더 현대적이며 다양한 가변성을 지닌 조형의상을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두의 개념과 유형적 분류를 여러 문헌을 통하여 문헌적, 사적 고찰로 연구내용에 적용하였고, 현대에서 활용된 관두의 형식의 복식을 제시하여 그 활용도를 고찰하였다.

작품은 복식의 조형적 공간성에 대한 고찰로서 관두의 형식의 T자 구조를 토대로 공간성을 부여하여 인체에 직접 입혀 형성되는 조형적 형태를 실험을 통해 제작하였다.

2. 관두의 이론적 고찰

2-1. 관두의 개념과 유형적 분류

역사속에 나타난 여러가지 복식의 형태(形態)를 있는 그대로 열거시키면 다양하고 또한 무수히 많다. 우리는 복식을 역사에 등장한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정리함으로써 몇개의 유형(類型)을 정하고 그 특성을 찾아봄으로써 여러 형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표현성(表現性)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표현성의 관점에서 나누게 되며 현의(懸衣), 관의(寬衣), 책의(窄衣)로 그 형태가 분류된다.¹⁾

또한 복식의 조형성(造形性)을 중심으로 그 유형의 특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조형성의 관점에서 복식의 유형을 나눌 경우, 권의(褌衣), 관의(寬衣), 착의(衣)의 세가지 기본형으로 나눌 수 있다.²⁾

이에 본 연구는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표현성을 중심으로 한 형태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권의는 현의(懸衣)라고도 하며 드레이퍼리(drapery)형식의 복식을 말한다. 특별하게 재단(裁斷)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장방형(長方形)의 옷감을 신체에 두르거나 감싸서 입는 의복을 총칭해서 권의라고 한다.

관의는 체형에 합당하게 조형된 관활한 전신의(全身衣)를 지칭하는 복식을 말한다. 이것은 신체의 형(形)에 맞게 만들었으나 관활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신체의 선(線)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복식이다. 착의

는 권의, 관의와 달리 신체에 꼭 맞게 밀착되어 입도록 재봉된 복식이다.³⁾

이에 본 연구는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표현성을 중심으로 한 형태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권의는 현의(懸衣)라고도 하며 드레이퍼리(drapery)형식의 복식을 말한다. 특별하게 재단(裁斷)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장방형(長方形)의 옷감을 신체에 두르거나 감싸서 입는 의복을 총칭해서 권의라고 한다.

관의는 체형에 합당하게 조형된 관활한 전신의(全身衣)를 지칭하는 복식을 말한다. 이것은 신체의 형(形)에 맞게 만들었으나 관활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신체의 선(線)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복식이다. 착의는 권의, 관의와 달리 신체에 꼭 맞게 밀착되어 입도록 재봉된 복식이다.³⁾

관두의(貫頭衣)라고 호칭되는 형식은 중장형(德長形)의 직물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그로부터 머리가 나오게 하고 천조각이 신체의 전후에 내려지게 해서 입는 복식이며, 관두의라는 명칭은 일본의 명치(明治), 대정(大正)시대의 학자들이 [위지(魏志)]의 기록을 토대로 붙인 이론이다.⁴⁾

그 기록을 살펴보면 왜인전(倭人傳)에 […이것을 의(衣)로 하되, … 그 중앙은 천(穿)하고, 두(頭)를 관(貫)한다.]로 나와 있으며⁵⁾ 그 뜻은 '머리를 묶어서 구부러 맺고 넓게 한장으로 된 천의 중앙에 구멍을 도려내어 머리를 뺄 수 있게 하여 이것을 옷으로 했다'고 하며, 관두의가 원시 일본여자의 복식에서 그 형태를 보이고 있어 관두의의 명칭이 처음 일본의 복식에서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관두의는 권의에 포함되며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관두의인 경우는 관의로 포함된다.⁷⁾

그러므로 관두의 형식을 유형적으로 분류해보면, 관두(貫頭)의 방식에 따라 폰초(poncho)형과 키톤(chiton)형, 튜닉(tunic)형으로 나눌 수 있다.⁸⁾

폰초형은 장방형의 옷감을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관두하는 형으로 멕시코의 우이필(huipil)이라고 하는 민속의상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대표적 의복에서 보여지는데 멕시코의 우이필은 망토형이며 관두의 형식에 가까운 폰초는 인디언의 복식에서 볼 수 있다.⁹⁾

키톤형은 두장 혹은 둘로 접은 상단을 한 곳 또는 두 곳을 징거서 관두하거나, 원통형(圓筒形)의 상단에서 관두하는 형으로 고대 그리스의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p. 93, 1989.

2) 장문호, 복식미학, 세운문화사, p. 24, 1977.

3) 조규화, op. cit, p. 103.

4) 장문호, op. cit, p. 30.

5) 元井能, 日本被服文化史, 光生館, p. 3, 1969.

[… 衣を作る事單被の如く, その中央を穿ち, 頭をて之衣る]

6) 장문호, op. cit, p. 31.

7) 조규화, op. cit, p. 95, 1989.

8) 조정희, 복장원론, 수학사, p. 89, 1987.

9) 장문호, op. cit, p. 30.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키톤을 예로 들 수 있다.

튜닉형은 두개의 사각천을 목과 팔이 나오도록 구멍을 남기놓고 앞선 아래를 꿰맨 간단한 형태로¹⁰⁾ 고대 로마의 튜닉을 들 수 있으며, 관두의 형식의 구조를 하고 있고 소매없이 머리와 목만을 노출할 수 있는 간단한 형식의 단의(短衣)인 중국 고대 복식 양당()에서 튜닉형의 관두의 형식을 볼 수 있다.¹¹⁾

튜닉형의 관두의 형식은 점차 복식의 발달로 상층에 양소매를 부착하여 다양한 의복형이 생겨나게 된다.¹²⁾

2-2. 관두의 역사 및 현대복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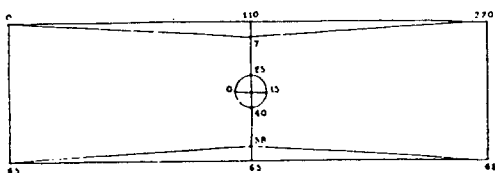
관두의 형식의 복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西歐)복식에서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로마에서, 동양(東洋)복식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고대복식에서 나타나며, 현재는 주로 남미의 민속의상인 폰초에서 보여지며, 현대복식에서는 관두의 형식의 구조를 응용하여 예술적 측면에서 공간감의 형태를 더하여 그 형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집트 복식 중 관두의 형식을 갖는 것은 칼라시리스(kalassiris)와 튜닉(tunic)이 있다. 칼라시리스는 <그림 1>의 평면도와 같이 직사각형의 천을 만든 간단한 복식으로 착용자의 어깨에서 발목까지 길이의 두배의 천을 절반으로 접어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곳을 가로로 꿰거나 등글게 파서 목둘레를 만들고 양옆 솔기는 그대로 터놓거나 꿰매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허리에 끈이나 폭 넓은 천을 둘러 입음으로써 소매가 생기고 주름이 잡히게 되어 앞부분을 모아 핀을 꿸음으로써 케이프(cape)를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튜닉은 그 모양에 있어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은 직사각형의 천을 접어 목둘레 선을 T자(字)나 원통으로 자른 것이다.<그림 3>

그리스 복식에서의 키톤(chiton)은 남녀 모두 입었으며 솔기가 없는 사각형의 천을 어깨에 두르고 피블라(fibula)로 각 어깨를 고정시켜 입은 것으로, 착용하는 민족과 지방에 따라 도릭 키톤(doric chiton)과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으로 나누어진다.

도릭 키톤은 도리아인의 남녀가 입은 기본의상으로 천의 크기는 가로는 입는 사람의 양팔을 벌린 길이의 두배이고, 세로는 신장에다 1피트를 더한 길이이고¹³⁾ 윗부분을 접어 케이프(cape)처럼 늘어지게 만들고(아포티그마) 반을 접어서 몸에 두르고 양어깨에 핀을 꿰었다. 옆솔기의 터짐선은 착용자의 우측(右側)에 오도록 입었으며 피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리에 끈을 매고 허리부터 스커트 단까지 꿰매기도 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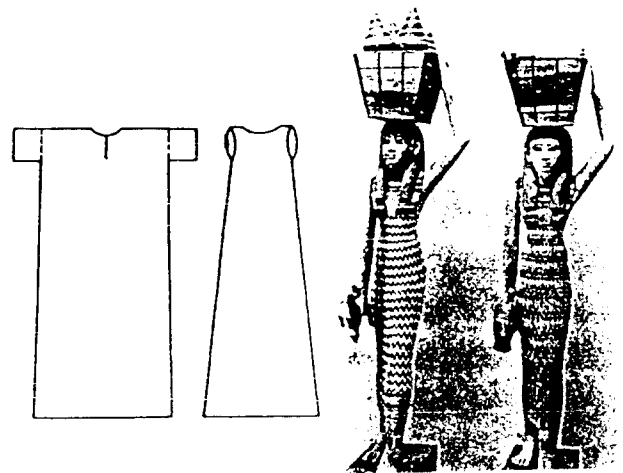
<그림 1> 칼라시리스의 평면도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그림 2> 칼라시리스

「서양 복식사」 수학사, 1987



<그림 3> 튜닉의 구성도와 착용 모습

「서양 복식사」 형설출판사, 1983

「서양 복식사」 수학사, 1987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은 아포티그마(apotigma)가 없는 것이 다르며 세로 길이가 입는 사람의 목에서부터 발 끝 길이이다. 이것은 둘레가 3야드 이상 즉, 팔을 바깥으로 펴서 손끝에서 다른 손끝까지의 거리의 두배의 것으로¹⁴⁾ <그림 5>, 입는 방법은 장방형의 긴 천을 몸에 둘러 절반으로 접힌 것을 발목에서 양 목둘레가 되는 곳을 뒤보다 2~3인치 길게 하여서 앞 목부분에 카울 네크라인(cowl neckline)이 생기게 입었다.

로마의 복식은 그리스 복식의 영향을 받아 드레이퍼리 형식의 복식이 주로 활용되고 튜닉(tunic)과 달마티카(dalmatica)에서 관두의 형식을 보인다.

로마의 초기 튜닉은 두개의 사각천을 목과 팔이 나오도록 구멍을 남

10)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p. 48~49, 1987.

11) 장문호, op. cit. p. 30, 1977.

12) 조정희, op. cit., p. 89.

13) 신상옥, op. cit. p. 37.

14)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p. 95, 1987.

겨 놓고 옆선 아래를 꿰맨 간단한 형태였으며 후기에는 소매를 달아서 T자형으로 만들어 벨트를 매어 이고 허리 윗부분은 블라우스처럼 보이게 하였다.〈그림 6〉 달마티카는 달마티카(Dalmatica)지방으로부터 소개된 것으로 구성은 십자(+)형으로 재단된 1장의 천바닥의 중심에 머리 나오는 구멍을 남기고 소매를 재봉한다든가, 혹은 같은 폭넓이로 재단한 2장의 T자형 천 바닥에 소매와 머리 나오는 구멍을 남기고 재봉함으로써 복식사상 새로운 의복으로 등장하게 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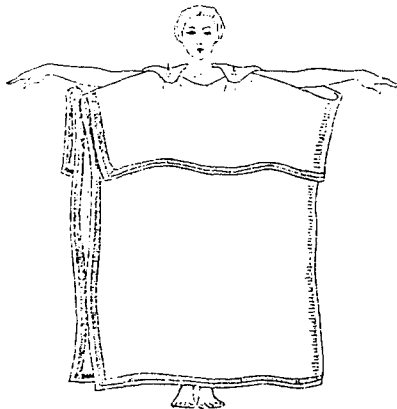
동양복식에서의 관두의 형식은 주로 고대 복식에서 구조로서만 나타나며 그 형태는 간단하게 보여진다.

중국의 복식에서는 양당이라는 복식이 있는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북방민족의 것으로¹⁶⁾ 호신의(護身衣)의 뜻에서 무관(武官)에게 착용되었고 가슴과 배의 양면에 합당(合當)시켜 착용한 단의(短衣)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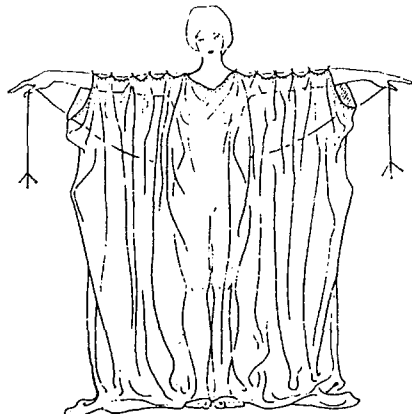
이것의 형태는 깃과 소매가 없고 처음에서 앞뒤 두쪽으로 되었던 것 같고 겨드랑이 아래와 어깨 뒤를 꿰었으며 남녀가 착용할 수 있었다.¹⁸⁾

일본복식에서는 3세기 미생시대(彌生時代) 왜인(倭人)의 여자들이 단순한 의복으로 한장으로 된 천의 관두의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고 한국복식에서는 상고시대(上古時代) 여진(麗愼), 옥저(沃沮) 등지에서 관두의의 존재로 보여지는 회피의(皮衣)로 피구(皮 : 가죽두루마기)의 종류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¹⁹⁾

관두의 형식의 복식은 그 형식에서 현재 남미의 민속복으로 남아 있으며 현대복식에서는 형식의 구조만을 응용한 미술의상과 케이프 형식의 망토를 실용의상에 응용하고 있다.



〈그림 4〉 도리 키톤의 착장법
「서양 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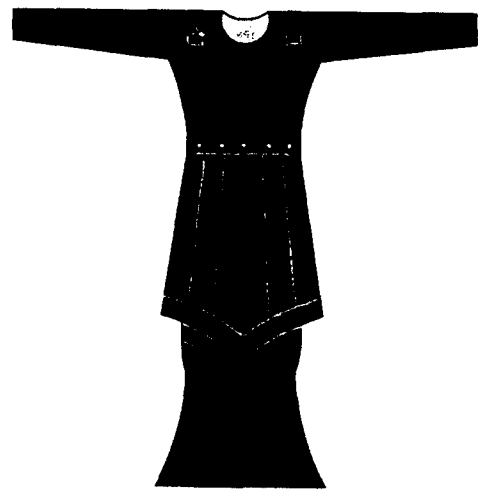
〈그림 5〉 이오닉 키톤의 착장법
「서양 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1



〈그림 6〉 로마의 튜닉
「서양 복식사」 수학사, 1987



〈그림 7〉 표면 장식을 한 달마티카
「복식 미학」 수학사, 1989



〈그림 8〉 양당개
전시도
「중국복식사」 경춘사, 1992

15) 장문호, op. cit. pp. 33~38.
16) 박성실, 이수용(역), 중국복식사, 경춘사, p. 71, 1992.
17) 장문호, op. cit. p. 30.
18) 박성실, 이수용역, op. cit. p. 73.
19) 장문호, op. cit., p. 31.

폰초는 남미의 인디오가 착용했던 관두의 형식의 길옷이며(그림 9). 보포와 같은 천을 중앙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목을 끼어 입도록 된 것으로²¹⁾ 오늘날 멕시코의 민속의상에서 주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멕시코여자들이 착용했던 우이필(huipil)과 케스케미틀(quechqu mitl)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깨에 걸치는 망포형의 폰초이다.

우이필은 흰색의 목면 2장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오도록 길이로 이어 만든 다음 중앙선이 어깨에 놓이도록 앞뒤 중앙과 양면을 맞춘다. 앞뒤 중앙선과 양 옆선에는 머리, 손이 드나들 수 있도록 분량을 남겨 놓고 막는다(그림 10)

케스케미틀은 두 장의 정방형의 면직물을 짜 맞추어 머리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그림 11), 미스티코족 여자들이 처음 착용하기 시작했으며²²⁾ 긴 직사각형의 천을 절반으로 접어 정사각형이 되게 한 다음 그 접은 선이 우측 어깨선에 놓이게 하고 머리가 드나들 수 있도록 트임을 한다.²³⁾

관두의 형식은 현대에 와서 폰초스타일의 망포로서 실용성을 갖춘 기성복과 관두의 형식의 구조를 응용한 미술의상과 공간감의 형태를 더하여 인체가 입고 움직이는 하나의 조각품으로의 예술적 측면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현대 복식에서의 폰초의 스타일과 구조는 망포로서 그 형태가 나타나며 이러한 형태는 활동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더해준다(그림 12, 13)

관두의 형식의 T자 구조는 주로 미술의상에서 보이며 이것은 텍스처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간결하게 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14)

3. 공간적 조형 형태와 복식디자인

3-1. 복식의 공간적 조형성

조형적용은 인간의 내면적인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형적용은 사회적 공간의 외적인 면까지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생명성의 창조는 개성적인 것을 목표로 하여 만들고 용도를 다한 뿐만 아니라 형태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성의 표현을 갖는 조형(造形)은 생활조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복식은 형태 색(色)을 중심으로 한 생활조형의 한 분야를 차지하며 실용성과 표현성이라는 두가지의 정점을 갖는다.²⁴⁾

복식은 인체와 긴밀하게 상관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인체가 착용함으로써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 디자인의 단순한 형태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의비하며 그것을 감싸는 복식은 그 전체로서 공간적(空間的)인 것이다. 또한 복식은 인체에 밀착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체와 복식과의 사이에도 어느 만큼의 공간이 있가 마련이다. 이것을 중간공간(中間空間)이라고 부르며 이 중간공간의 양과 그 형태에 의해 복식조형에 고유한 표정을 연출한다.²⁵⁾

복식에서 공간은 생리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를 모두 정하며 생리적

으로 공간은 크기의 착시에 기여하고 심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은 큰 공간은 평온하면서도 대담하고 극적이다.²⁶⁾



〈그림 9〉 칠캣 인디언(Chilcat Indian)의 의식용 의상
『복식의 역사』 까치사, 1987



〈그림 10〉 멕시코의 자포텍(Zapotec)족 여자 복장
『민속의상』 수학사, 1988



〈그림 11〉 멕시코의 케스케미틀
『세계의 박물관-멕시코』 한국일보사, 1986



〈그림 12〉 Daniel Hechter '91~'92 A/W Collections 'Fashion Show'



〈그림 13〉 Fendi '91~'92 A/W Collections 'Fashion Show'



〈그림 14〉 박현숙 작 '88 현대미술의상전

20)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가라, p. 86, 1992.

21) 한국일보사, 세계의 박물관-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p. 126, p. 133, 1986

22) 황춘섭, 민속의상, 수학사, pp. 179~185, 1988.

23) 조규화, 복식의 예술성과 오늘의 모드, 조형논총 제1집, 국민대 환경디자인 연구소, p. 20, 1981.

24) 장문호, op. cit., p. 65.

25) Marian L. Davus, Visual in Dress, Prentice Inc., pp. 90~91, 1990.

복식은 인간에게 입혀지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입체물이다. 따라서 복식조형은 시간적 변화를 갖는 공간적 조형 즉, 시공간 조형의 추구라 할 수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 실루엣의 추구인 것이다.²⁶⁾

그러므로 복식은 신체와 더불어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이러한 창조는 감성과 심성을 전달하는 예술 표현의 한 형태이며²⁷⁾ 조각가의 섬세한 조각품같이 인간 내부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작가의 깊고 깊은 이미지(image) 전달이 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미술의상과 함께 3차원적인 조각같은 의상이 등장했으며 의상은 사람의 몸에 걸쳤을 때 움직이는 조각과 같기를 원하였고 의상을 입는 사람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새로운 복식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⁸⁾

최근에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작품에서 조각적인 의상 작품을 볼 수 있으며, <그림 15, 16>과 같이 인체가 움직여 포즈를 취함으로써 조각적 느낌의 공간성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용의상으로는 <그림 17, 18, 19, 20>에서 볼 수 있듯이 손의 위치에 의해 다양하게 형태가 변화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단순한 실루엣에서 조형적 공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식은 입는 것의 기본적 목적보다는 '보는 것'에서의 즐거움이 한 요소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복식이 인체에 착용됨으로써 그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는 복식과 인체와의 공간감이 복식디자인을 움직이는 조각예술로서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그림 15> ISSEY MIYAKE
New York,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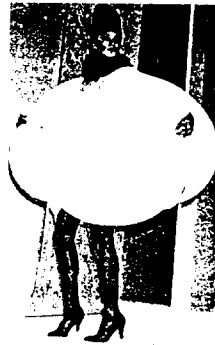
<그림 16> ISSEY MIYAKE
『현대디자인의 세계』미진사, 1990



<그림 17> Tre Vaghiissime Donna
'89~90 A/W Collezioni
Donna N. 11



<그림 18> Courreges
'93~94 A/W Collections
'Fashion Show'



<그림 19> Pierre Cardin
Mode et Mode, (1987)



<그림 20> Sybilla
'89~90 A/W Collezioni Donna N. 11

3-2. 작품 제작 및 해설

본 연구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공간감 형성에 중점을 두어 인체에 입혀짐으로써 나타나는 조형적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기하학적 도형을 모티브로 한 간결하고 명쾌한 특징을 복합형태로서 평면구성을 시도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그 평면 패턴이 인체에 입혀졌을 때 기하학적인 면의 자연스러운 분할과 미묘한 색채의 구성을 보다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작품제작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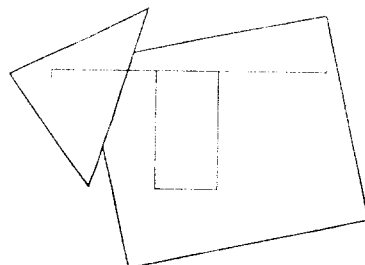
제작방법은 관두의 형식의 T자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인체의 팔 벌린 상태에서 도형을 구성하였고 움직임에 따른 겹쳐짐을 색채와 면 분할로서 조화성있는 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인체가 직접 입어 움직임으로써 형성되는 풍부한 공간감의 조형적 형태를 여러 단계의 실험을 통해 그 위치를 잡아 제작하였다.

작품에 응용된 모티브는 작품 I, II, III은 기본 도형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작품 IV, V는 만다린형, 티인형, 사나리형 등을 응용하여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각품의 소재는 하이울, 벨로아캐시미어, 하이피어를 사용하여 울(wool)이 갖는 드레이프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1) 작품 I

- 구성 : 원피스(one-piece)
- 모티브 및 깎자 구조 : 각각형과 삼각형의 복합 구성



26) 이현숙(역), 복식미학, 경춘사, p. 129, 1984.

27) Marilyn J. Hoh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p. 351, 1968.

28) 이성순, 미술의상, 조형논총 제6집, 국민대환경디자인연구소, p. 309,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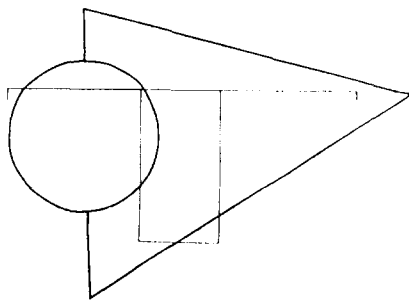
· 해설 : 사각형과 삼각형의 복합 구성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삼각형의 정점과 사각형의 1/5외곽 점을 일치선으로 연결하여 T자의 기본 구조로 하였고 인체에 입혀서 관을 내리고 움직임으로써 또 다른 양의 삼각형이 구성됨으로써 쉐라인(theme line)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형태의 다양성을 조형적 구성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Ⅰ〉

(2) 작품 Ⅰ

- 구성 : 원피스(one-piece)
- 모티브 및 T자 구조 : 삼각형과 원형의 복합 구성



· 해설 : 서로 다른 성격 즉 방향성과 무방향성의 삼각형과 원형의 복합구성으로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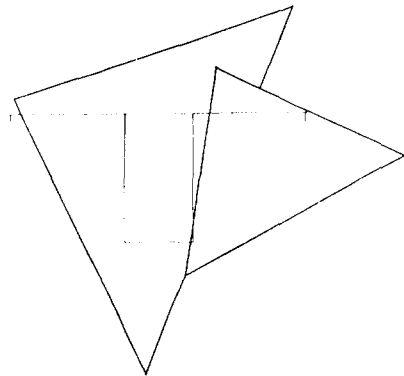
삼각형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T자 구조를 정하였으며 그림으로써 반 원형과 작은 직삼각형이 형성되며 뾰족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갖는 구성을 시도하였다. 대비적인 효과로 인체가 입고 움직임으로써 직선과 곡선의 어울림으로 조형적 형태를 이루며 구성 면에서 극적인 면을 보여준다.



〈작품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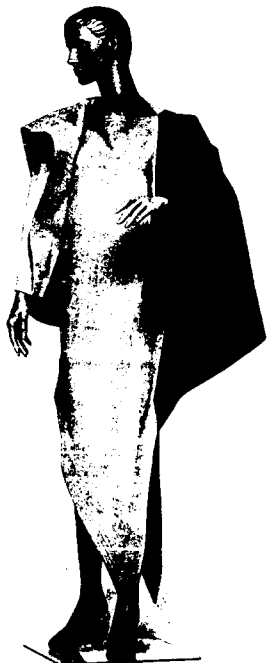
(3) 작품 Ⅲ

- 구성 : 원피스(long dress)
- 모티브 및 T자 구조 : 직삼각형과 삼각형의 복합 구성



· 해설 : 두 삼각형의 복합구성으로 한 롱드레스(long dress)를 제작한 것으로서 수직적인 느낌의 대담한 구성을 시도하였다. 삼각형의 구성은 T자 구조를 정하여 접혀짐으로써 또 다른 삼각형의 형태를 구성하며 다양한 조형적 형태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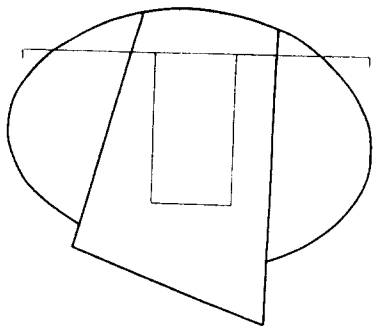
형태의 구성은 삼각형의 꼭지점을 쉐라인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일치선의 느낌을 줌으로써 신체적인 착시효과를 나타낸다. 소매 부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크기의 삼각형은 움직임에 따라 여러가지 조형적 공간을 이룬다.



〈작품 Ⅲ〉

(4) 작품 Ⅳ

- 구성 : 원피스(one-piece)
- 모티브 및 T자 구조 : 사다리형과 타원형의 복합 구성



· 해설 : 타원형 위에 사다리형을 그대로 겹침으로써 복합구성을 시도한 것으로서 선적인 입체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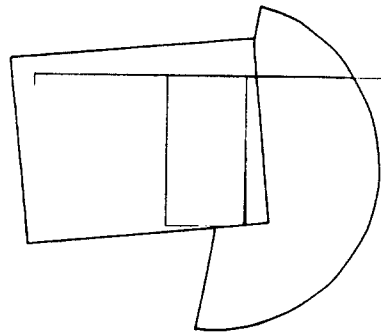
타원형과 사다리형의 윗부분을 T자 구조로 정하여 접혀짐으로써 반원형이 형성되게 하며 팔이 나오는 구멍의 위치를 어깨선에서 가깝게 하여 반원형의 자락에서 조형적 형태를 이루며 사다리형의 밑변을 경사지게 하여 방향성을 갖게 한다.



〈작품 Ⅳ〉

(5) 작품 Ⅴ

- 구성 : 원피스(one-piece)
- 모티브 및 T자 구조 : 직사각형과 반원형의 복합 구성



· 해설 : 반원형과 직사각형의 복합구성으로 두 도형의 위치를 언밸런스하게 배열시켜 복합시킴으로써 형태의 다양성을 대담하게 시도하였다.

반원형의 정점을 위로 하여 T자 구조를 정하고 인체의 팔을 움직임으로써 그 부분이 접혀지면서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두 도형의 엇갈린 복합형태로 험라인의 각진 선으로 불규칙하게 처리되었고 직선과 곡선의 어울려진 조형적 형태를 만든다.



〈작품 V〉

4. 결론 및 제언

복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인체에 입혀짐으로써, 그 조형적 형태가 형성되며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형예술로서 복식은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더불어 복식을 창작함에 실용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복식을 움직이는 조각물의 한 형태로 보고 단순하고 간결한 기하학적 도형의 복합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평면적으로 구성하여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는 기하학적인 면의 자연스러운 분할과 미묘한 색채 및 형태구성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자(字)모양을 기본 구조로 하는 관두의 형식을 현대 복식에 도입함으로써 활동의 자유로움과 편안함, 그에 따라 형성되는 조형적인 형태미(造形美)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둘째, 기하학적 도형의 복합 형태를 응용함으로써 도형이 갖는 간결하고 단순한 특징의 직선과 곡선의 미묘한 조화를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구성을 시도할 수 있었다.

셋째, 관두의 형식의 복식은 창작 방법이 다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독특한 스타일의 하나로서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 관두의 형식의 복식디자인에 있어서 기본도형뿐 아니라 다양하게 형태변이가 된 도형 및 자연 형태 표현까지도 디자인의 모티브로 하여, 활동성이 강한 실용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풍부한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방향이 제시되어 그 가능성이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한다.

6 2 3 0 8

참고문헌

- 박성실, 이수웅(역), 중국복식사, 경춘사, 1992.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87.
- 이정옥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83.
- 이현숙(역), 복식미학, 경춘사, 1984.
- 임원자, 백영자, 서양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 장문호, 복식미학, 세운문화사, 1977.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9.
- 조정희, 복장원론, 수학사, 1987.
- 페니스파르외, 현대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1990.
- 황춘섭, 민속의상, 수학사, 1988.
- 이성순, 미술의상, 조형논총 제6집, 국민대환경디자인연구소, 1987.
- 조규화, 복식의 예술성과 오늘의 모드, 조형논총 제1집, 국민대환경디자인연구소, 1981.
- 정시화, 조형의 생태성에 관한 고찰, 조형논총 제 4집,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1984.
- 한국일보사, 세계의 박물관-백시곡, 국립인류학박물관, 한국일보사, 1986.
-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1992.
- 국립현대미술관, 88현대미술의상전, 1988.
- 元井能, 日本被服文化史, 光生館, 1969.
-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1965.
- Carl K 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1963.
- Issey Miyake(Phographs by Irving Renn)
A New York Graphic Society Book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Toronto-London in Association with Callaway Editions, New York, 1988.
-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Inc., Englewood Cliffs, 1980.
- Marilyn J. Hoh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8.
- Bazaar(Italia), Collezioni.
- Fashion Show, '91-'92 A/W, Collections.
- Mode et Mode(1987), 10月号.
- Collezioni Donna 1989-90 A/W N.11.
- Fashion Show '93-'94 A/W Collections.